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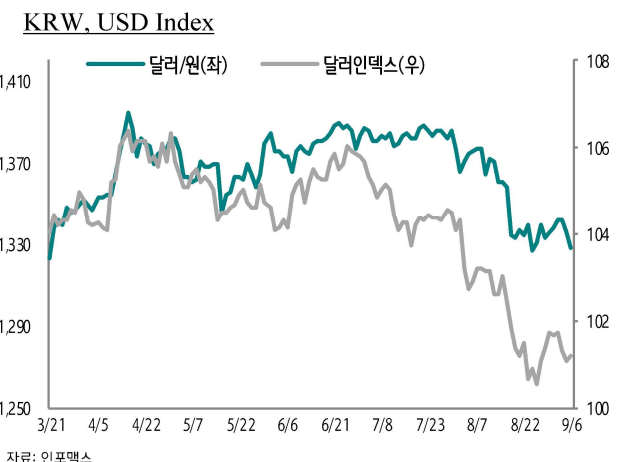
9월9일

[USD/KRW]

USD/KRW 예상 : 1334~1343원
NDF 증가 : 1336.50 (Swap point : -2.40, 1338.90원)

- (금일 전망) 금일 달러/원 환율은 혼재된 미 고용지표와 위험회피 심리에 상승할 전망. 예상을 밑돈 미 8월 비농업 취업자 수와 연준 인사들의 금리인하 지지 발언에도 실업을 하락 등 혼재된 결과와 월러 연준 이사의 신중한 스탠스에 9월 빅컷 기대가 약화된 점이 달러 강세를 견인. 여기에 미 고용 악화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뉴욕증시 하락 등 위험회피 분위기에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. 다만, 수급상 수출업체 매도 물량이 유입될 가능성은 상단을 제한할 요인. 이에 환율은 상승 및 1330원대 중후반 주거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
- (전일 동향) 6일 달러/원 환율은 미 민간고용 둔화로 인한 약달러에 1.7원 내린 1334.2원으로 출발. 이어 역외 롱스탑 추정 물량 유입에 8.3원 내린 1327.6원에 증가 기록(15:30). 미 실업을 하락 등 연준 금리인하 폭 관련 불확실성에 달러 반등하면서 4.0원 상승한 1339.9원 마감

달러/원 환율 상승 요인	달러/원 환율 하락 요인
- 연준 빅컷 기대 약화로 인한 달러 강세 - 미 고용시장 둔화 우려와 위험회피 심리	수출업체 매도 물량 유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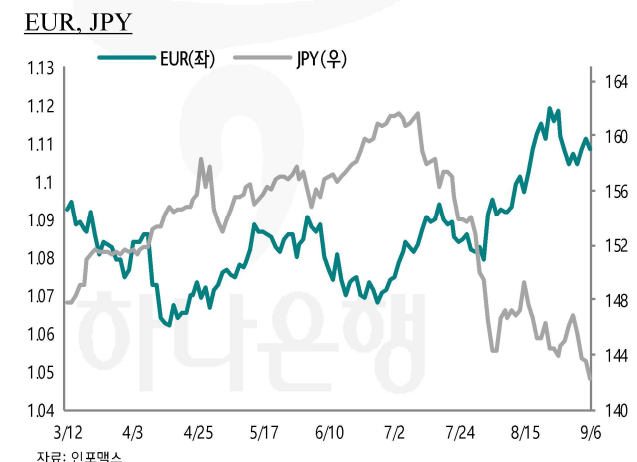
[Global Market]

EUR/USD 예상 : 1.1036~1.1116
USD/JPY 예상 : 141.72~142.62

- (USD Index)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 8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으나 연준 빅컷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달러 가치가 반등. 달러인덱스는 0.13 상승한 101.19를 기록
- (EUR) 유로화는 유로존 2분기 GDP 성장을 확정치가 전분기 대비 0.2%로 잠정치 0.3% 대비 둔화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 약세 압력으로 작용. 유로/달러 환율은 0.0025달러 하락한 1.1086달러로 마감
- (JPY) 엔화는 미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미 국채 금리 하락과 안전자산 수요 증가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/엔 환율은 1.14엔 하락한 142.32엔으로 마감

글로벌 통화 동향

구분	증가(전일비)	재정환율(KRW)
USD Index	101.19 (+0.13)	
EUR/USD	1.1086 (-0.0025)	1471.74 (-12.51)
USD/JPY	142.32 (-1.14)	932.95 (+1.71)
USD/CNH	7.0921 (+0.0022)	187.19 (-1.22)



[Macro Analysis]

미국채 장단기 Spread(10Y-2Y) : +6.20bp (전일대비 +7.80)

- 글로벌 경제는 미 고용 둔화에도 연준 금리인하 폭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임. 미 8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월보다 14.2만명 증가하며 예상치 16만명을 하회. 지난 2개월 수치가 8.6만명 하향 조정되면서 7월 취업자 수는 10만명 하회. 미 8월 실업률은 0.1%p 하락한 4.2%로 예상에 부합. 시간당 평균 임금 전월비 0.4% 오르며 예상치 0.3%를 상회.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데이터가 큰 폭의 인하 필요성을 시사할 경우 지지하겠지만 지표 하나에 과잉 반응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. 미 노동시장 냉각 신호에 미 국채 수익률은 2년물 9.80bp 하락한 3.648%, 10년물 2.00bp 하락한 3.710%를 기록. 뉴욕증시는 위험회피 심리와 기술주 급락에 다우지수 -1.01%, S&P -1.73%, 나스닥 -2.55% 마감. 국제유가는 미 노동시장 냉각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에 하락

주요 경제지표 및 일정

시간	내용	예상	이전
08:50	일본 2분기 실질GDP성장률(QoQ)	0.8%	0.8%
10:30	중국 8월 CPI상승률(YoY)	0.7%	0.5%
	중국 8월 PPI상승률(YoY)	-1.4%	-0.8%
23:00	미국 8월 컨퍼런스보드 고용추세지수		109.61

